

방콕식품박람회가 지목하는 식품트렌드

방콕사무소



동남아시아 최대 식품박람회

• 태국은 아시아 최대 식품산업강국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이자 최신 트렌드의 선두국가이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동남아 최대의 식품박람회인 방콕 식품박람회(THAIFEX 2018)가 개최되었다.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46개국 2,433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한국관에는 68개 수출업체가 참여했다.

다양한 식품 홍보로 세계인 관심 집중

- 이번 박람회 한국 농식품 홍보관에서는 태국 내 프리미엄 과채류 시장 공략을 위해 딸기, 사과, 버섯 등을 선보였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강식품, 즉석 편의식품 트렌드에 맞춰 한국의 홍삼, 흑마늘, 즉석국 등 다양한 수출 유망품목을 전시홍보했다.
- 아울러 태국은 음료 및 주류 소비가 높은 점을 반영해 오미자 음료와 스파클링 소주, 막걸리 등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소주, 맥주, 막걸리 등 한국술 시음행사를 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콕식품박람회가 제시하는 식품트렌드

- 방콕식품박람회의 홍보제품들을 통해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는 편의성과 기능성으로 압축됨을 알 수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식품거대시장인 아세안을 공략하기 위해서 방콕식품박람회에서 이야기하는 트렌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① 핑거푸드(Finger Food)

- 바쁜 일상으로 인해 전통적인 식사문화에서 벗어나 간편하게 한끼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중인 요즘, 휴대가 용이하고 식사시간을 줄일 수 식품으로 '핑거푸드(Finger Food)'가 떠오르고 있다. 카나페나 치즈스틱처럼 작아서 손으로 집어먹기 좋은 음식들을 핑거푸드라 부르는데,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해 삼시세끼의 식사시간 외에도 각 개인의 생활리듬에 따라 언제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고있다.

핑거푸드 제품



(왼쪽부터) Chicken Fillet Range Charoen Pokphand, Crispy Chicken Sticks, Organic snack for Infant & Children

② 글루텐-프리(Gluten-Free)

-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글루텐프리 제품에 대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루텐프리 제품



(왼쪽부터) MAMA Handi rice,
Quinoa Nacho Crisps,
Veganic Mixed root chips

③ 프라이빗 라벨(Private Label)

- 박람회 추천한 트렌드 중 하나는 프라이빗 라벨(Private Label)의 인기다.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국내에서는 PB(Private Brand)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럽만큼 보급률이 높지는 않으나 아시아에서도 PL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불황에 따라 낮은 가격대의 PL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이 개발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편의점에서도 적극적으로 PL시장에 진출하면서, 편의점 시장 확대와 함께 PL상품 역시 성장하는 중이다.

④ 유기농 제품(Organic Products)

- 최근 소비자들의 경향을 보면,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면서도 유기농제품 등의 건강한 식품을 원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좋은 식이요법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업계에서도 설탕 및 식품첨가제를 가미하지 않은 식품의 출사가 늘고 있으며 구매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유기농 제품



(왼쪽부터) Packaged Coconut water,
Organic Thai Pure Coconut Sugar Granule,
Pumpkin seed butter with coconut flower syrup

아세안 지역의 거점, 한국 농식품 진출기반 확충

- 태국은 베트남과 더불어 전남방정책 대상 주요시장으로서 한국 농식품의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또한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요한 수출 교두보인 만큼 지속적인 품목발굴과 마케팅을 통해 태국은 물론, 미얀마와 라오스 등 주변국에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